

철학사

06 플라톤의 신론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자, 오늘 오후에는 플라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세 번째 주요 주제인 신과 우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의 형상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플라톤이 우주 전체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총체적인 배열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존재, 생성, 그리고 비존재를 구분한다. 여기서 생성은 물론 변화의 상태이며, 따라서 개별적인 세계의 특징이다.

이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세계. 존재는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유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비존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유의 완전한 결핍입니다. 특정한 것이 없다는 것, 바로 이 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정한 것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비존재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는 특수한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사고에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창조가 무에서, 즉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후대의 기독교 교리를 스스로 예견하지 않았습니니다. 플라톤은 그런 신을 개념화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생각하는 신은 유대-기독교의 신처럼 무에서 창조해낸 신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신은 형태를 만들고 조직하는 자에 더 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존재를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란 형태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물은 어떤 사물의 본질, 속성, 실체, 종, 또는 관계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물은 반드시 어떤 사물의 본질에 참여 해야만 합니다. 특정한 무언가가 되기 위해.

형상이 결여된 비존재의 영역, 즉 일종의 원초적 물질로 이해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원초적 물질이라니. 플라톤이 이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물질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항상 존재해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원초적인 덩어리에서 특정한 종류의 구체적인 것들이 문자 그대로 형성된다는 거죠. 형성되는 거고요.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그런 식이죠.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는 재료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질문은 존재의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지금까지 방대한 수의 형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시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사물의 형상, 저런 종류의 사물의 형상, 또 다른 종류의 사물의 형상, 셀 수 없이 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 형상들은 모두 실재합니다.

그들은 존재 해요. 알겠어요? 그들은 특정한 사물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초월해요. 초월의 영역은 또 다른 존재의 영역이에요.

그것들은 이 영역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도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형태가 나타내는 종류의 것에 대한 이상적인 선을 상징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형태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 다중우주가 아닌 하나의 우주, 즉 우주론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형태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말하자면 모든 형태들이 참여하는 관계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모든 형태의 형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태성의 형태, 이상성의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곧 선하고 이상적인 것이기에, 플라톤은 선의 형상을 개념화한다. 이 선, 저 선, 또 다른 선의 형상이 아니라, 말하자면 특정한 종류의 형상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형태의 형식, 이상성의 형식, 선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개념이 그가 『국가』에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선의 형식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점차 초월적이고 지고한 존재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사고를 어떤 이들이 유신론이라고 부르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철학자 A. E. 테일러가 쓴 플라톤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가 플라톤을 훌륭한 성공회 신자로 묘사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선한 신을 향한 시도였다 . 자, 방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

그리고 여러분의 책이 있으면 꼭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공화국의 왼쪽 상단 부분, 509절은 공화국의 표준 페이지 번호입니다. 그는 지금 선 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

그는 이러한 현실이 인식의 대상에 진실성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인식의 대상이란 무엇일까요? 형상입니다. 좋습니다.

인식의 대상으로서 그들의 진실과 실재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의 힘을 부여하여 우리가 형상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선의 이념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죄수는 벽에 비친 그림자뿐 아니라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빛 속에서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동굴 비유에서 플라톤은 풀려난 죄수가 햇빛 속으로 나가 언덕을 올라 태양을 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태양은 우리가 알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의 근원입니다.

그 형상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인식 대상에 진리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선의 형상, 즉 선의 이념입니다 .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인식의 원인이자, 알려진 한도 내에서 진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식과 진리, 그 둘 다 아름답지만, 진리가 그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일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식의 원천 그 이상이니깐요.

하지만 지식과 진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예시에서 빛과 비전을 태양과 같다고, 모든 것의 근원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 옳듯이 말입니다 . 그렇죠 ? 하지만 그것들이 태양 그 자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마찬가지로 지식과 진리, 이 두 가지를 선의 형태 , 선의 아름다운 형태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고귀한 영예입니다. 그러자 끼어든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리 의 근원 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것들을 능가한다면 ,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태양은 보이는 것들 에 가시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생성과 성장, 양육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겠죠 . 비록 태양 자체가 생성의 주체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 인식의 대상들은 선의 현존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선의 현존으로부터 자신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그 존재와 본질 또는 본성이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그것들을 구출하십시오 . 선은 본질이 아니지만, 존엄성과 초월적인 힘에 있어서 본질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선은 지식의 근원이며 , 형상의 존재의 근원이며, 본성 의 근원 이며, 사물의 다양한 본성과 형상의 근원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 자, 그가 '근원' 이라고 말할 때, 그는 시작으로서의 기원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의존하는 근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들이 선의 형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다양한 형상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의미한다면 , 기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런 종류의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

자, 이제 파르메니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대화편의 이름을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지난주에 본문에서 살펴봤던 부분처럼, 파르메니데스에서는 다수와 구별되는 하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선은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반면 개별적인 것들의 세계, 변화의 세계는 다수를 나타냅니다. 선 에는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 바로 이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플라톤주의는 초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사상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싶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유명한 쉼마를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한 분이시니라.”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요? 좋아요.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이번 주에 개요를 작성하고 있는 파이드로스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특정한

아름다움 과는 구별되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이해되시나요 ? 바로 그 하나, 선, 선함 그 자체, 아름다움 그 자체,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 점을 고려해 보면, 그의 후기 저작들은 표면적으로는 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론을
향하고, 두 번째는 도덕 질서를 향합니다.

아, 또 시작이군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주장이군요. 선(善)이며
모든 형상의 형상인 하나(一) 덕분에 우주에는 질서, 이성적 질서,
헤라클리토스가 로고스 구조라고 불렀던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상의 형상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 선은 모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덕적 질서뿐 아니라
우주적 질서에 대한 개념도 얻게 됩니다.

거시세계, 즉 우주. 미시세계, 즉 도시국가와 개인의 도덕적 삶. 그리고
이 둘 모두의 질서의 근원은 선, 즉 선의 형태이다.

음,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티마이오스의 우주론과 관련하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티마이오스에서 발췌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티마이오스에서 그는 장인과 세계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기서 실수를 했네요. 법칙을 적어버렸어요. 아, 그건
티마이오스였어야 했는데. 티마이오스에서 그는 장인과 세계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서, 필레보스 , 소피스트의
저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티마이오스에서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장인은 누구일까요? 장인은 어원적으로
예술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사람. 그리스어로는 데미우르고스(demiurgos)라고 하는데, 이는 ‘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꾼. 그러니까, 여기 우주의 일꾼, 우주의 장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선한 장인 이 모든 것이 선하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상에 따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을 대화 속에서 이끌어내는 방식을 잠시 접어두고, 대신 연설을 통해 자신이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을 들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명확한 개념화와 문자 그대로의 진술 능력이 온갖 안개와 구름, 개념적 장벽에 부딪힌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데미우르고스를 의인화한 방식이 마치 인격적인 신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수도 있다.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인격적인 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데미우르고스, 즉 창조자는 선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마치 "우리가 공화국에서 이야기했던 선이 바로 내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인, 즉 선한 존재는 단순히 존경받아야 할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이상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형상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우주의 생성의 근원이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 생성? 우주 존재의 근원.

그래서 그는 선하시기에 모든 것이 선하기를 바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상에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관념, 즉 계획이 창조자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는 실제 노동자라기보다는 건축가처럼 들리네요. 그리스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고 했나요? 귀족적인 관점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손으로 일을 하는 장인이 되는 것은 귀족의 품위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따라서 그는 장인을 기획자, 건축가로 생각하는 것 같다.

누가 세계 영혼을 부여하는가? 세계 영혼? 그래, 그는 우주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명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한다.

몸과 영혼. 사실, 그 개념은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탈레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탈레스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은 영혼으로 가득 차 있고 신들로 넘쳐난다고 했죠.

영혼이 있다고? 세상에 영혼이 있을까? 세상은 영혼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응,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개념, 그리스어 '프시케'는 굉장히 모호하거든. 생명을 뜻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라틴어 '아니마'도 영혼과 생명 모두를 뜻하는 데 쓰이잖아. 이해되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만약 이 생에서 특별히 선하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짐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신들, 즉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신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비물질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처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말입니다. 신들.

어쨌든 그가 가진 것은 세계 영혼이다. 마치 우주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플라톤은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 알겠어요? 그리스인들에게 우주는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었죠! 고유한 힘을 가진!

자연이 가진 생명력 때문이죠. 이해되지 않아요? 바로 그 때문에 19세기 베를린의 낭만주의자들이 플라톤을 다시 연구했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들도 자연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계 영혼은 형상에 따라 우주를 형성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장인은 만물에 스며들어 만물을 생기 있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세계 영혼에게 형상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부여합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몸을 활성화시키고 움직여 선과 형상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영혼, 즉 온 우주는 선에 따라 질서정연해야 한다. 우주적 질서 말이다. 그런데 필레부스와 사르비스의 법칙에서 그가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보면 영혼과 이성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개개인의 인간 영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성적인 영혼이 삶을 질서 있게 이끌어갑니다. 세계 영혼 역시 마치 이성적인 질서 부여자처럼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신은 헤라클리토스의 로고스로 돌아가서 그 개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낙사고라스의 누스 말이죠. 사실,

필레보스에서 헤라클리토스는 아낙사고라스가 우주적 이성, 즉 누스라는 개념으로 사고한 것을 칭찬하는 맥락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충분히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우주론에 대해서는 잠시 후 티마이오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타에테토스에서 그는 도덕적 질서 측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배포 자료 첫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타에테토스의 발췌문을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연설입니다. 악은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선에는 언제나 그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세계에는 항상 반대되는 속성이 있다. 빛과 어둠처럼 말이다.

덥고 춥고. 건조하고 습하고. 선에는 반드시 그 반대인 악이 존재해야 한다.

그들은 신성한 세계에 설 자리가 없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 필멸의 본성을 괴롭 히게 된다. 영원한 영역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악에 대한 논의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나머지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나아 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신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의 도움으로 의롭고 공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이 제시하는 이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기는 순수하고 선량해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학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겉모습뿐이었죠. 그런 궤변가들이요.

내 생각엔 그건 옛날 미신과 다를 바 없어. 진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 신성한 영역에는 불의의 그림자조차 없다.

오직 의로움의 완전함만이 신성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의롭게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보다 더 신성을 닮은 것은 없습니다. 불의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람은 진정한 정신과 힘을 드러내거나, 혹은 정신의 부재와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탁월함입니다.

선의 형태는 도덕적인 삶 의 모범이자 이상을 제시합니다 .

정치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는 신을, 그리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백성을 돌보는 목자에 비유합니다. 정치가를 목자에 비유함으로써, 신을 백성을 돌보는 목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안녕을 돌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그는 신을 스스로 움직이는 세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창조자와 세계 영혼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둘을 하나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스스로 움직이는 세상의 영혼이십니다. 인간과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죠. 그게 바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선행과 악행에 모두 보상하시고, 자연 전체 에 탁월함을 부여하시는 분 . 율법의 하나님.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플라톤이 제시하는 신에 대한 발전된 모습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국가』에서 선의 형상이나 『파르메니데스』에서 말하는 '하나'가 유신론적 존재라는 것을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 겠죠? 그런데 율법, 즉 티마이오스에 이르러서는 점점 더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도덕적 차원까지 더해지죠. 티마이오스는 처음에는 단순히 우주론에 관한 책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티마이오스 전체를 읽어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사는 우주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 즉 영혼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이 주관하는 우주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세계 영혼에 의해 활성화되는 질서 말이죠.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다루는 우주론은 도덕적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든, 도시 국가의 삶에서든 말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악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사랑의 형태는 안 되는 건가요? 아, 네. 어떤 것의 형태는 이상적인 것, 원형을 말하는 거죠.

' 좋음' 이라는 개념은 '탁월함' 이라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바로 탁월함이죠 . 따라서 사물이 형태에 참여하는 정도를 생각할 때, 그것은 탁월함의 한 형태입니다.

아시 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탁월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모든 선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죠. 그는 특정한 선을 언급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알 겠어요? 하지만 좋은 것, 훌륭한 것,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도덕적인 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알 겠어요? 도덕적이지 않은 선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선' 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폭넓게 사용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보세요 ? 우리는 좋은 하루라고 말하고, 좋은 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죠.

아시 겠죠? 좋은 행동과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 좋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탁월함, 품질을 의미하는 거죠.

이상적인 자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앞에 있어서의 선함, 즉 진리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든 말이죠.

혹은 예술에서의 선함,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름다움의 문제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또는 도덕적인 삶에서의 선함,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의롭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선이 드러나는 방식일 뿐입니다

.

그에게 있어 선이란, 형태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잘 형성된 형태일 뿐이었다. 그것은 형태가 된다는 것의 본질이다. 좋아, 이제 타당한 질문이니 악의 문제로 들어가 보자.

명백히 악은 부조화를 상징합니다. 반면 우주에서 선이란 조화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

악은 일종의 부조화입니다. 우주에서 조화와 부조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과 악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 곳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티마이오스에서 그는 이성의 작용 외에도 세계 영혼이 작용하며, 필연성의 작용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스어 아난케(anankhe)를 이렇게 음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연성. 일종의 맹목적인 운명에 의한 인과적 필연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는 선한 힘 외에도 맹목적인 힘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비존재에 대해 말한 내용을 마치 원초적인 물질적인 것처럼 연결 짓기도 합니다. 다루기 힘들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말이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원한 물질이 있고, 영원한 영혼, 즉 이성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악은 물질이 이성적인 질서에 저항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치 인간의 몸이 강박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되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원론적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해석은 영지주의 방향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플라톤 이후 그를 해석하는 주된 흐름은 보다 유일신론적이었습니다. 마치 궁극적인 실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비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개별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개별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그런 종류의 필연성. 그것은 이원론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이상주의적 해석이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성의 본성을 지닌다.

영혼. 생각. 형태.

하지만 그것에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현상,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실재는 아닙니다. 음, 그러한 방향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신플라톤주의 운동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필연성과 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원한다면 자연의 힘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당신이 창문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진다면, 무엇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우주는 이성적인 우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자연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는 법칙에 대해 또 다른 수수께끼 같은 제안을 하는데, 이는 이원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영혼 외에도 이원체(dyad) 를 언급합니다 . 이원체. 이원체 .

말 그대로 두 번째입니다. 모나드가 첫 번째라면, 다이어드 는 두 번째입니다. 마치 어떤 것의 두 번째 종류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가 단순히 자연의 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스테이즈맨지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배포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확실히 이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리적 세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속성들이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원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항상 상반되는 원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낙시 만 더를 기억하시죠?

그는 물처럼 축축한 것뿐만 아니라 건조한 것도, 열처럼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차가운 것도 발견했기에, 그 어떤 원소도 궁극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치마 대신에, 그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은 물리적 우주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를 표현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페이지 맨 위. 귀 기울여 들으 십시오. 그러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의 진행을 돕고, 우주의 자전을 이끌어 주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통제를 해제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던 회로들이 지정된 시간 동안 제 역할을 다했을 때입니다. 그 후에는 회로가 자체적인 동력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분께서 이성을 부여하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회전 능력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능력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나요? 마치 용수철을 감았다가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놓으면 저절로 풀리잖아요. 이해되세요? 정원 호스를 감아 놓고 수압을 최대한 높이면 저절로 풀리는 것처럼요.

마치 호스 안에서, 봄 속에서, 우주 속에서 무언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 읽어보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가장 신성한 것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신체의 본질이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신체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죠.

천국 또는 우주라고 부르는 그곳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많은 축복받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기에, 영원히 변화 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한 곳에서 균일하면서도 가변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으로부터 역회전, 즉 본래 운동의 최소한의 변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회전은 부정적인 것 중에서 가장 덜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세계의 전반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어떤 일들이 그 결과로 일어나지 만, 그것들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분조차도 우주를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저 순간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우주에 관해 주장해서는 안 되는 교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 움직이며 영원히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이 우주 전체를 모든 시간 동안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회전 운동으로 돌린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신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번갈아 회전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원론을 명백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대립하는 두 신에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언급된 교리, 즉 남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초월적인 신성한 원인의 도움을 받아 생명의 갱신과 불멸을 얻게 됩니다.

다른 시대에는, 그것이 풀려나면 고유한 힘으로 움직이며, 풀려나는 순간 엄청난 운동량을 축적하여 역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뒤에 나오는 나머지 단락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정하신 행위에서 그것이 지닌 모든 미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원초적인 혼돈, 원초적인 덩어리처럼, 모든 잘못과 악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혼돈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악은 다시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신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은 자신이 키우고 유지하는 생명체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은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 없이 나아가야 할 때, 신이 통제권을 포기한 직후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오랜 혼돈의 상태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우주 시대가 저물어 갈 때, 이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몇 가지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처음 질서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 안에서 겪는 고난을 보시고, 폭풍과 혼란에 휩싸여 다시 끝없는 심연 속으로 사라질까 염려하시며, 다시금 키를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순환적인 우주론입니다. 말하자면, 질서 있고 합리적인 조화와 점차 심화되는 부조화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중 일부도 이와 유사한 순환적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낙시메네스가 기본 원소를 공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는 응축과 희석의 순환, 즉 통합과 분해 같은 순환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꽤 흔한 개념이었죠. 플라톤의 정치 사상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는 사회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정부가 서로 계승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이해되지요?

자비로운 폭정은 자비로운 통치자가 사라지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강압적인 통치 이후 러시아에서 벌어진 혼란을 보십시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플라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한한 존재에는 본질적인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은 유한한 물리적 우주의 자연 질서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요소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요소입니다. 자연적 악의 문제, 즉 자연적 악의 문제는 어떤 도덕적 사고 때문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의 본성 자체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 신학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직면 해야 할 악의 문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형상에는 악이 없잖아요.

인간성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인간 본성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인간, 즉 육체를 가진 인간을 접하게 될 때, 그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적인 사과는 썩지 않은 사과입니다. 특정한 모양의 사과일 때만 썩는 거죠. 음.

네. 네. 물론, 신이 창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인 이신론은 사실 18세기에 등장한 사상입니다.

원하신다면, 신이 항상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신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견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플라톤의 비유를 빌리자면 말이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앞서 말했듯이, 일종의 이원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후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하면서 일종의 범신론이 나타납니다. 자, 플라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글썄, 불쌍한 플라톤은 이러한 대안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전에 이미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어요. 네.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문제는 비존재가 영원한 형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창조되지 않은 근원적인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일 뿐이 예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라는 말, 기억나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귀엽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귀여운 게 아니라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 남은 건 선집에 실린 티마이오스 부분을 함께 훑어보는 건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럼 수요일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간의 영혼, 즉 소우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먼저 꺼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